

아름다운 은혜 71

예수님을 따르는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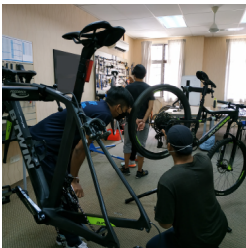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겨울의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신지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위해 멀리서 염려와 함께 기도를 보태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 하루 사이에 한 달치 비가 쏟아지면서 수도권 곳곳의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아직 복구가 필요한 곳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옆의 하천이 범람해서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잠겼었습니다.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두고도 물이 계속 차오르면 어떻게 할지 주민들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잦아들어 괜찮았습니다.

공방 이야기

락다운 기간 동안 자전거 정비 코스를 기다렸던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두어 달을 지냈습니다. 격주로 한주 씩 그리고 주말마다 진행된 코스를 통해 여러 청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외국계 스포츠 용품 회사 직원 교육으로 만난 20대 청년들은 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유쾌하고 긍정적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라가 계속 발전해서 본인의 삶이 나아질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원과 잠재력이 많지만 정치가 늘 문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 총리 선임 이후에 이슬람 보수화 정책과 법안이 논란 중이어서 더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이미 회사의 주주와 대학 입학 정원등 사회 곳곳에 무슬



림 할당.우대 정책이 많은데, 대형 쇼핑몰과 상업 중심지에서 무슬림에게 상점을 의무 할당하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소매점에서 저알콜 주류외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무슬림들 조차 이런 차별 정책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을 인종.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무슬림들이 지지해 주어야 하고, 어렵겠지만 무슬림에 대한 종교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종교 자유는 예민한 주제인데 다음 세대는 지금과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이야기가 나왔나 봅니다.

무슬림은 세습되고 개종이 허락되지 않으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탈할 수 없는 무슬림 표를 확보해두고 타 인종.종교 차별을 통해 결집시키면 쉽게 선출이 되니 정치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하니 동의를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서 부모에 의해 어떤 종교를 알게 되도 십대가 되어 스스로 자의식이 생기면 자신의 믿음을 고민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믿음은 누구의 강요나 어릴적 습관만으로 가질 수 없는 거라고 하니 한 청년이 수심에 빠지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비슷한 고민을 해왔던 듯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어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집에 함께 초대해서 교제하자고 약속하며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심으신 씨앗을 조금씩 움트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더 마음을 열고 확신해 가도록 기도해주세요.

올해 공방은 코로나로 6개월 동안은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불확실한 재정 상황을 은혜로 지나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는 오히려 깊은 이야기를 더 쉽게 나눌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도 의미 있는 기회를 얻고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온라인 한국어 수업과 상담

일년 넘게 한국어 온라인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더 관심이 높아진 한국 문화 콘텐츠와 코로나 때문에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배우려는 열의가 높습니다. 먼지역이나 타국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오

프라인 보다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구성이 가능해서 오히려 학생들은 만족하는 듯 보입니다. 다양한 종족과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10대에서 50대까지 학생들을 만나는데, 한국어를 배우려는 취미로 인해 서로가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 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본질을 간과하지 않는 자세로 수업을 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로 메신저로 쓰여지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하게 됩니다.

이 십대부터 사역을 해오면서 사람들을 돕고 상담해 왔지만 한계와 고민이 느껴져서 40대 초에 시작했던 상담 공부를 몇 년전에 대학원을 졸업하며 마쳤습니다. 이후 어떻게 더 배워가고 개발되어 사람을 도울까 조금은 막막했는데, 감사하게도 좋은 수퍼바이저 선생님들을 만나 기관에 소속되어 2년째 수련을 받으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련하는 선생님들이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상담을 하고 계셔서 사례를 통해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인간사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공활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 및 성인 심리검사와 성인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하는 분들은 모두 가족문제, 자녀와의 문제로 씨름하며 고통을 겪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나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 속에서 누적된 아픔이거나 왜곡된 신념이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것이 울무가 되어 신앙과 실제 삶과의 큰 간격 속에서 좌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유물론을 깊이 믿는 불신자 분들입니다. 이 분들을 도우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한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공활의 시선과 섬세한 귀를 주셔서 상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고 영혼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일상

가은이(19)와 유은이(14)는 12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의 1-2년만에 친구들을 만나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한 모양



입니다. 어느새 훌쩍 커버린 친구들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라도 이어갈 수 있어서 딸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랜 락다운과 온라인수업으로 자칫 우울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점점 더 마음이 지치기도 또는 거칠어 지기도 하는 사람들을 느낍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다가가기 편합니다. 저희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지나기에 공감이 되어 더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마음을 채우실 분이 주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복음을 나눕니다. 새해에도 저희의 일상은 이렇게 계속 흐를 듯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복음으로 마음을 채울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한해 동안 격려와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

2021. 12. 24

안익상, 이난영, 가은, 유은 올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방에서 만나 복음과 성경적 가치를 나누었던 이들과 관계가 지속되고, 새로운 만남 가운데 신뢰를 주고 마음을 얻도록.
- 코로나로 변화가 많지만 사업 운영과 사역을 모두 지혜롭게 해가도록.
- 한국어 수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이어지는 이들을 얻도록,
- 상담으로 돕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도록
- 가은(19)이가 어려워 하는 수업 과목에 지혜를 구하며 성실히 공부하고, 유은(14)이가 중2 과정을 시작하며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를 즐겁게 해가도록.
- 홀로 계신 양가 아버님의 건강(허리 통증, 고혈압)과 마음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편지는 인터넷, SNS,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후원계좌: 외환은행 990-090819-162